

□ 미즈호 金融그룹의 方向¹⁾

- 미즈호 금융 그룹은 지주회사의 설립(지난 9월 29일)을 계기로 구체적인 경영 통합의 계획을 수립-발표
- 3개 은행의 재편이외에 계열 증권-투신-리스 등의 재편 작업도 어려운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, 나아가 상장기업의 70%(주거래 30%)와 금융거래가 존재함으로써 미즈호그룹의 탄생이 일본 산업계에도(예: 유통업계)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
- 미즈호의 현실 목표는 종전 G5에서 아시아 최강자로 바뀌었으며, 이는 국제금융재편 과정이나 스스로의 부실자산 부담을 감안한 결론임
- (시사점) 한국의 우량은행간 통합 논의가 보다 포괄적인 금융업계 재편이나 세계금융산업계의 M&A등 재편 정보와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
○ 경영 통합의 계획

- 제1 단계: 지주회사 산하에 기존 은행 병존 체제
 - 지난 9월 29일 지주회사 '미즈호 홀딩스'를 설립, 2002년 3월까지 興業, 第一勸業, 富士 등 3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
 - 신설된 지주회사가 상장 기업이 되며, 3개 은행이나 신탁, 증권 등은 비상장 기업으로 바뀜
 - 지주회사는 스태프기능의 기획관리본부와 사업별 9개 단위로 구성되고, 3명의 CEO를 포함한 이사회 9명, 집행 임원은 이사 겸임을 포함하여 24명, 직원은 자은행의 겸직 형태로 하여 800명 정도(통합 완결후 2-300명)가 될 것임
- 제2 단계: 기능별 은행업 재편
 - 2002년 4월 3행 체제는 '미즈호 은행'(개인·중소기업 상대)과 '미즈호 기업은행'(대기업 상대)으로 기능별로 재편될 계획이나 아직 未定 상태임
 - 왜냐하면, 對개인·중소기업 은행과 對대기업 은행의 분리가 최적 고객층의 세분화인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며, 대기업 은행의 자금조달 부족이 발생시 공정거래법상 계열 은행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

1) 이 글은 週刊東洋經濟(2000.10.7)에 실린 'みずほファイナンシャルグループ:最終形には流動的,世界のゴールまだ遠く'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○ 미즈호의 잠재력과 약점

- 잠재력

- 세계 제일의 총자산 130조엔을 바탕으로 규모 경제를 발휘하여 가격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,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 및 IT 전략투자의 가능성도 높음
- 향후 6여년간 인원 3,270명(▲7,000명), 국내외 지점 595개(▲207개) 등으로 줄여 총 5,000억엔이상의 비용절감을 꾀하고, 보유 주식 3조엔 등 저수익 자산 감축
- 예상 수익을 보면 2,900억 엔(2001년 3월기)→5,800억 엔(2003.3)→8,000억 엔(2006.3), 연결 ROE는 4%(2000.3)에서 12%(2006.3)로 높임
- 소매금융 부문이 탄탄한 고객 기반을 배경으로 전체 수익의 40%이상을 올림

- 약점

- 투입된 공적 자금이 2.5조엔으로서 4대 금융그룹중 가장 많으며, 부실채권 잔고도 4.7조엔으로 가장 많아 부실 대출건이 두드러진 반면, 유가증권 보유이익은 1.4조엔으로 三和-東海은행보다 적음
- 미즈호의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2006년 3월기까지 잉여금을 3.1조엔까지 축적하여 공적자금 상환에 착수할 예정

○ 미즈호의 관계사 정리 문제

- 종합금융그룹의 지향

-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하며, 계열 각사간의 주도권 경쟁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
- 대표적으로 신탁 부문에서 安田信託(부동산관련, 소매형)과 미즈호신탁(연금등, 도매형), 증권 부문에서 미즈호인베스터즈증권(第一勸業, 소매형) 및 新光증권(興業, 소매형)과 미즈호증권(도매형) 등 3개사의 역할이 상충될 소지가 있음
- 한편, 리스에는 東京리스, 興銀리스 등 4개사가 있으며, 투신투자자문에는 4개사 외 관계 증권사까지 총 6개사가 난립 양상(興銀第一 라이프에셋이 선두)이며, 반면 信販의 오리코, 카드의 UC 등 단일화된 분야도 있음
- 지방은행에서는 東邦, 福島, 仙台은행 등이 우호적이며, 生損保에서는 第一生命-安田火災가 우호적인 반면 朝日生命-日動火災 등은 은행과 별도로 움직이고 있음

- 다양한 업계 재편을 촉발

- 미즈호 3행은 상장기업의 70%와 거래 관계에 있으며, 30%는 주거래은행 관계임
- 소고나 세이부 백화점은 興銀과 第一勸業이 주거래 은행이며, 자스코와 마이칼 통합설도 第一勸業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점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함
- 세존생명과 시티그룹의 통합, 인터넷증권이나 EC단말기 등 이업종간 제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
- 富士가 사이버뱅크에서 마넥스증권이 채용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면 인터넷상 주식 매매와 은행의 종합구좌를 한번에 연결시킬 수 있어 기존 복수 증권사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화가 기대되고 있음

○ 아시아 맹주를 겨냥

- 기존 일본내의 활발한 사업 다각화

- 興銀은 상반기중 M&A 실적을 일본 3위권으로 끌어올렸으며, 노무라와 파생금융 상품 개발에도 공동 출자하였음
- 반면, 국제적인 M&A나 Structured Finance 등에서 일본계 은행·증권사는 낙후됨

- 국제금융업계의 재편에 편승, 아시아 최강자를 지향

- 興業-CSFB, 第一勸業-JP모건(투신), 富士-체이스맨해튼(국제 커스터디) 등의 기존 개별 은행과 해외금융사간의 협력관계가 미즈호 그룹 탄생과 체이스-JP모건간 통합 논의 등으로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모색되기 시작함
- 또한, 현실적으로 미즈호 금융그룹은 자체 부실자산의 부담과 뒤떨어진 금융노하우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, 당초 「G5」라는 어려운 목표 대신에 '아시아의 최강자'라는 지역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현실적 목표로 바꿈

○ 시사점

- 국내 우량은행의 통합 논의가 보다 넓은 금융업계의 재편이나 세계금융산업의 재편 방향도 고려함으로써 현실적인 지향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
 - 단순한 세계 은행업계 10위권 등은 한국 은행업에 비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음

(임진국)